

saesoon

새순

어울림

2026

4^호



1차 학습 · 세례 · 입교식

2026년 3월 29일, 학습 · 세례 · 입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성도들은 하나님 앞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했습니다. 이번 예식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함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롭게 믿음의 여정을 고백한 이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 굳게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를 구원해주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입교를 받은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 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정지후 학생



부활절 세대통합예배

부활절 세대통합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영유아부터 장년 세대까지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말씀으로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번 예배를 통해 부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며 한 공동체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예배 후에는 성도들이 이웃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합찬양대 부활절칸타타

2026 새순교회 부활절 칸타타 <갈보리의 사랑>이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롭게 올려졌습니다. 이번 칸타타는 연합찬양대가 함께 서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칸타타는 단순한 음악 발표가 아니라, 온성도가 함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고 부활의 생명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준비와 연습으로 섬겨주신 연합찬양대와 모든 손길에 감사드리며, 새순교회가 갈보리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두나미스 기도부 기도원 방문

담임목사님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산리 기도원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찬양과 감사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도착 후 안디옥 성전에서 드려진 기도부 집회를 통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성전기도와 산기도, 기도굴에서의 기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오산리 기도원 방문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2026 상반기 바이블아카데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바울서신과 공동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배우며 신약 성경의 풍성한 말씀을 깊이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바이블아카데미는 3년 전 창세기에서 시작된 말씀의 여정이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따라 걸어온 성도들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완성의 소망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새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서 가기를 기도합니다.



권사 기도회

4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새순라운지에서 “은혜로운 권사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나누고, 각자의 삶과 사역 가운데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김학겸 담임목사님은 고린도후서 12장 1~10절을 본문으로,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 후에는 권사님들이 삶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나누며 감사의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붙들고, 앞으로도 기도와 섬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권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세대 복음축제

이번 다음세대 복음축제는 '모여봐요 새순의 숲'이라는 주제로 새순교회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섬기며 진행되었습니다. 미취학, 취학, 청소년파트아이들과 초청된 V.I.P 친구들이 예배와 공연, 놀이와 먹거리를 통해 교회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복음축제는 하루의 행사를 넘어, 다음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사와 성도들은 기도와 봉사로 섬겼고, 아이들은 복음의 기쁨과 공동체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새순교회가 다음세대를 품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축제를 통해 다음세대 아이들을 맞이하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축제를 계기로 주일에 처음 방문한 두 부부의 소식을 들으며 모두의 헌신 위에 맺어주신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보았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 신지수 자매



사역반 아웃리치

사역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훈련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고, 가정과 일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과정 가운데 진행된 아웃리치를 통해, 배운 말씀을 실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섬기고 나누며, 제자의 삶은 교회 안의 배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역반을 통해 세워진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교회와 가정,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사역반 훈련을 통해 저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독서와 나눔을 통해 사역자로 준비하게 하시고, 단기선교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목회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늘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며,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박광섭 집사



블레싱 봄 나들이

지난 5월 12일, 블레싱 회원들이 오산 물향기 수목원으로 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따뜻한 봄기운 속에서 자연을 누리며 함께 걷고 교제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환한 웃음과 대화 속에서 공동체의 사랑과 감사를 느낄 수 있었으며, 블레싱 회원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나들이를 위해 섬겨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6월 20일(토)/ 7월 2일(목)~7월 9일(목)/ 7월 10일(목)~7월 11일(목)/ 7월 24일(목)~7월 25일(목)/ 7월 25일(목)~7월 26일(목)/ 7월 30일(목)~8월 1일(목)

유아부
복덩어리 가족축제

태국 미안마 난민·이주민
단기선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파트
여름 성경학교